

더불어  
민주당

# 1-가 김춘화

진도군의회의원선거 진도군 가선거구



이 자는 김춘화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 진도군의회의원선거 (진도군가선거구)

###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1-가	더불어 민주당	김춘화	여	1961.02.06. (65세)	진도군의회 행정문화복지 위원장	전남도립대학 (현 국립목포대학교) 관광레저과 졸업	(전) 제8대 진도군의회 비례대표 (전) 제9대 진도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 2. 재산 및 병역사항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49,831	49,831	0	0	0	병역의무 없음		

###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14,261	0	0	-해당없음	
후보자	14,261	0	0		
배우자	0	0	0		
직계존속	0	0	0		
직계비속	0	0	0		

### 4. 소명서

해당사항 없음



# 응답

#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  
빠르게 응답하겠습니다



## 학력

- 진도서초등학교 졸업
- 진도여자중학교 졸업
- 목포여자고등학교 졸업
- 전남도립대학 (현 국립목포대학교) 관광레저과 졸업

## 경력

- 전) SKT 옥주대리점 대표
- 전)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장
- 전) 한국문인협회진도지부장
- 전) 제8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전) 제9대 진도군의회 전반기부의장
- 현) 진도군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장



# 김춘화는 약속합니다

## 여성과 아이를 위한 정책활동

여성과 아이의 삶이 안정되지 않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돌봄과 교육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인성과 공동체 가치를 키우는 교육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복지가 아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입니다.

## 예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복지

예술과 문화는 지역 공동체의 품격이며,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곧 지역의 자산입니다.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를 통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진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이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되고, 예술이 공동체 회복과 연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생활정치로 민생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농어업인의 판로 확대

진도의 들녘과 바다는 우리 부모님의 삶이었고, 진도군민들의 생계이자 자부심입니다. 생산만 책임지는 농어업이 아니라 "잘 팔리는 농어업"이 되도록 유통과 판로까지 챙기겠습니다.

침수-가뭄 대비 농업기반 정비와 태풍과 폭우가 한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행정을 만들어 준비하고, 판로확대를 위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겠습니다.

##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키는 민생경제 의정

30년 이상 자영업에 종사한 소상공인으로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체감해 왔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은 숫자가 아닌 삶의 문제이며, 행정의 속도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의원활동 중 우리 관내 공공기관부터 진도군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 지역경제활성을 이끌자고 발의하였습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정치가 아니라, 예산과 제도로 민생을 지키는 의정을 실천하겠습니다.

## 장애인일자리 확대- 다문화 가정 보육정책

장애인일자리 다양화를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실무형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확대추진하고 자립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는 특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장애인도 다문화가정도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진도.

김춘화가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속도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군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일하겠습니다.

어떤 민원사항도 **김춘화** 는  
**반드시 대답합니다**